

영남에서의 강호 예찬, 정식의 <축산별곡>

: ‘힐링-콘텐츠’로서의 강호-기행가사의 성격을 중심으로*

조 태 성**

- I. 들어가며
- II. 유교적 사색으로서의 <축산별곡>
- III. 축산의 노정과 사색의 방식
- IV. 나오며 : ‘만들어가는’ 콘텐츠로서의 기행가사

국문초록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길’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더러 보인다. 복원된 길에서 사색할 수 있는 또는 사색을 이끌 수 있는 스토리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스토리는 대개 여행의 주요 축으로 작용하면서 길을 따라 사색하는 가운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임 (2018S1A6A3A01080752). 더불어 이 글에서는 조태성, 「정식의 <축산별곡>과 그 문학사적 의미」(『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를 글을 바탕으로, 제6회 영호남의 대화 연합학술대회의 주제인 ‘영남 속의 호남인 호남 속의 영남인’에 따라 ‘영남에서의 강호’와 ‘사색’을 매개로 다시 읽기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글의 내용 중 일부 텍스트 원문 및 배경 분석과 관련한 언급은 이 글에 의지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 / sijogasa@jnu.ac.kr

데서 힐링 체험의 완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에 주목하여 필자는 사색의 공간이자 축으로서의 ‘축산(竺山)’을 상정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축산별곡(竺山別曲)>에 주목하였다. 사색의 결과가 스토리를 가진 노래로 탄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행 혹은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낯선 지역, 낯선 길과의 조우이다. 그렇다면 ‘축산’을 조우하는 정식의 사색 양상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오늘날 길을 나서는 우리의 사색 나아가 힐링과도 접점이 있을 것인가? 그런 접점을 ‘길’이라는 콘텐츠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사색의 과정과 지향은 결국 ‘축’과 ‘길’의 설정이며, ‘길에서의 사색’은 콘텐츠화 과정에서 ‘리-마인드 맵핑(Re-mind mapping)’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천착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하였다.

사실 정식의 여행이 ‘길을’ 사색하거나 ‘길에서’ 사색하는 양상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기행가사와 강호가사의 두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작품이라는 데서 ‘길을-기행적 측면에서’와 ‘길에서-강호적 측면에서’를 병치하여 오늘날 여행과 사색을 통한 힐링의 점점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시도해보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기도 하다.

◆ 주제어

축산별곡, 길, 강호예찬, 스토리, 리마인드 맵핑

I. 들어가며

오늘날 ‘길’은 도로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일종의 문화적 혹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해 가고 있다. 자신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이자 여행 그 자체로도 인식되고 있다. ‘옛길’이니 ‘둘레길’이니 하는 이름들과 그것에 열광하는 사회적 현상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것은 또 산책이나 여행을 상징하기도 한다.

힐링(Healing)은 또 어떠한가. 힐링의 일반적 의미는 ‘치유’에 기반한다. 그래서 ‘치료’이거나 ‘회복’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대한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그것이 정신적인 것, 즉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일종의 방법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끔, 여행과 힐링은 이 지점에서 조우한다. 그리고 그 조우의 매개를 필자는 ‘사색’이라고 단언한다. 어떤 계기가 되었던 우리에게는 주체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의지와 대상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때 그 의지는 사색으로, 대상은 길 위에서 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길을’ 사색하는 경우는 많이 보아왔지만, ‘길에서’ 사색하는 방식이나 사례를 들어보거나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길에서’를 주목한다. ‘길에서’ 주목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산보 혹은 산책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부 사색의 과정을 형성하게도 한다. 하나의 공간 혹은 장소를 노래하는 기행가사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드물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사색의 길을 찾아낸다면 역으로 오늘날 ‘길’의 사색을 재현하거나 혹은 체험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사색의 공간으로서 축산(竺山)을 상정해본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축산별곡(竺山別曲)>에 주목할 것이다. 기행 혹은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낯선 지역, 낯선 길과의 조우이다. 그렇다면 ‘축산’을 조우하는 정식의 사색 양상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오늘날 길을 나서는 우리의 사색 나아가 힐링과도 접점이 있을 것인가? 그런 접점을 ‘길’이라는 콘텐츠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사색의 과정과 지향은 결

국 ‘축’과 ‘길’의 설정이며, ‘길에서의 사색’은 콘텐츠화 과정에서의 ‘리-마인드 맵핑(Re-mind mapping)’¹⁾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천착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하다.

II. 유교적 사색으로서의 <축산별곡>

먼저 기행가사에 대한 문학적인 개념부터 살펴보자. 국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기행가사라고 하면 ‘관유기행가사(觀遊紀行歌辭), 유배기행가사(流配紀行歌辭), 사행기행가사(使行紀行歌辭)’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표류기행가사(漂流紀行歌辭)’²⁾가 더해지기도 한다. 이 중 관유기행가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에게 남겨진 대표적인 기행가사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기행가사에 대한 종합적 고찰에서는 최강현³⁾의 연구가 시작점에 있다. 그에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기행가사는 ‘첫째, 그 문학 양식이 한국 고전문학 영역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문학 양식이라고 할 가사 형식이어야 하’고, ‘둘째, 작품 내용이 작품 창작의 동기 또는 등정원인(登程原因)이 여행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그 내용이 출발·노정·목적지·견문이나 소감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⁴⁾

이런 측면에서 <축산별곡>⁵⁾은 의심의 여지없이 관유기행가사라고 할

-
- 1) 이 글에서는 무언가 일깨워주는 것들과 그 길들의 교차를 구성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사색의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 2) 정기철, 『한국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도서출판 역락, 2001.
 - 3)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일지사, 1982.
 - 4) 최강현, 「한국기행가사의 현황과 연구 동향」, 제5회 가사문학전국학술대회 발표집(2004. 9), 2쪽.
 - 5) 이 작품은 그의 증손인 정익환(鄭翼煥)이 1782년에 엮은 『선조가사(先祖歌詞)』에 송강 정철의 가사 작품들과 함께 실려 있다.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은 목민관으로서의 다짐과 더불어 축산 지방의 산천 풍물과 이를 대하는 작자의 소회를 담고 있다.(조태성, 「정식의 <축산별곡>과 그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가문화회, 2010, 380쪽)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행가사가 “가사 형식에 출발, 노정, 목적지, 귀로의 4단계를 내포한 시간적 공간적 과정에서 여행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자신의 여행 경험을 담아 문학화한 것”⁶⁾이라고 본다면, <축산별곡>은 이에 비교적 충실하게 들어맞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후기의 문인 정식(鄭湜, 1661~1731)⁷⁾이 ‘용궁’이라는 곳에 부임한 이후 공무 중 틈을 내어 육로와 해로를 따라 여행하는 노정이 노래에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축산별곡>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진동혁⁸⁾이다. 진동혁이 『선조가사』를 입수하여 거기에 실린 이 작품에 대해 간략한 해제를 내놓은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 탐색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필자의 연구를 통해 <축산별곡>의 면모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선행 연구의 탐색을 통한 객관적 시각 확보가 어려웠던 까닭에 이 논의가 간혹 자의적일 수밖에 없음을 미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⁹⁾ 이후 이상원¹⁰⁾에 의해 간략한 논의가 더해지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장정수¹¹⁾의 논의가 주목받는다. 그는 기존 논의에서 언급된 <축산별곡>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는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부분과 오독의 과정을 바로잡았다. 그 또한 작품의 성격에 대해 기행가사와 강호가사의 형식이 섞여 있어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필자 역시 의도적으로 ‘기행-강호가사’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축산의 길을 살펴보기 위해 그 역사적, 지리적 배경부터 살펴보자. “지금은 경북 북부 예천군의 한 면(面)이 되어버린 용궁. 예천에서부

6) 최강현, 앞의 책, 11쪽.

7) 정식의 생애에 관해서는 조태성, 앞의 글에 보다 자세하다.

8) 진동혁, 「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9) 조태성, 같은 글, 337쪽, 각주 1번 참조.

10)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69권, 한민족어문학회, 2015.

11) 장정수, 「<축산별곡>의 성격과 작자의식」, 『어문론총』 87,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터 흘러드는 사천(沙川)이 의성도(義城島), 즉 지금의 용포 마을 일대를 감싸 흐르며 형성된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인해 다시 세인의 발길을 끄는 마을이다.”¹²⁾ 본래 “용궁은 축산(竺山), 원산(園山), 용주(龍州)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신라 때는 축산, 원산으로 불렸고, 고려 성종에는 용주라고 높여서 불렸다. ‘용궁’이라는 명칭은 고려 현종(1012)에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찍부터 웅주(雄州)인 상주(尙州)에 인접해 있으면서 문화적인 교감을 계속하였으며,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인사들이 도성을 오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던 중요한 고을이었다.”¹³⁾

<축산별곡>은 정확하게는 1728년 초여름께 무신란(이인좌의 난)이 실패로 끝난 직후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용궁공행장」에 의하면 정식은 1725년(영조 1) 겨울에 축산으로 부임한다. 그러다가 1728년(영조 4)에 병을 얻어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보통 이 시기의 3년간을 <축산별곡>이 지어진 시기로 유추한다.¹⁴⁾

이상원 역시 이 작품에 대해 “현직에 있을 때 지었다는 점, 그런데 <관동별곡>과 달리 부임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한참 직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지었다는 점”¹⁵⁾을 특이사항으로 꼽는다. 그리고 이런 제작배경을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정치적 상황으로 지목한다. 작품에서 언급되는 ‘임 생각’이 과하다는 것이다. 즉 “이 과함을 드러내는 것이 작가가 <축산별곡>을 창작한 진짜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아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¹⁶⁾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축산별곡>에는 유난히 유교적 사색이 돋보인다. 흔히 기행가사에서 보이는 승경에 대한 감탄이나 감흥보다는 오히려 유교 이념에 기반을 둔 사색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마치 하나의 공간을

12) 권경열, 최연숙 옮김,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2018, 9쪽.

13) 권경열, 최연숙 옮김, 위의 책, 10쪽.

14) 조태성, 같은 글, 380쪽.

15) 이상원, 앞의 글, 185쪽.

16) 이상원, 같은 글, 186쪽.

매개로 관련한 사색을 풀어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일부러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처럼 읽히기도 한다.

유교적 사색은 용궁의 현감이었던 정식이 그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사색의 한 방식이자 내용이었을 것이다. “관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풍류와 예술적 체험에 탐닉했”¹⁷⁾던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방관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향락에 대한 기쁨과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자족적 태도”¹⁸⁾가 반영된 <축산별곡>을 통해 또 다른 시간과 공간에 위치한 ‘나’는 그의 사색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나만의 <축산별곡>을 생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생산의 과정이 곧 힐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점들로 인해 <축산별곡>의 기행가사적 성격에 일부 의문이 남아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 노정, 즉 장소와 장소 사이의 이동이 주로 뱃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기행적 성격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작품에서 언급되는 장소마다 ‘매번’ 뱃길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¹⁹⁾ 오히려 정식은 ‘뱃길’에 내포된 ‘운행’의 의미를 ‘사시의 운행’으로 치환하여 기행의 노정에 강호가사의 유풍을 담으려 했을, 즉 고도의 시적 기교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축산별곡>은 본질적으로 기행가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즉, “<축산별곡>이 기행가사의 성격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래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왕명에 의한 부임이 여행의 동기인 점은 확실한 까닭에 관유형 기행가사임도 분명하다. 평상시 정식의 성품과 이러한 여행의 동기로 보아 군주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감흥이 작품 내부에 혼재한다는 점 또한 자명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

17) 장정수, 같은 논문, 149~150쪽.

18) 장정수, 같은 논문, 167쪽.

19) 이 점은 필자가 작품에 언급된 장소를 직접 답사한 이후 얻은 결과이다. 다시 말해 어떤 장소의 경우에는 현청으로부터 뱃길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20) 조태성, 같은 글, 382쪽,

면 역대 기행가사, 특히 관유형 기행가사의 성격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선조인 송강 정철의 연주충신가사 제작의 가풍(歌風) 또한 계승하고 있음”²¹⁾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부제가 ‘강호-기행가사’인 것도 이런 관점으로부터 기인한다. 더불어 <축산별곡>에서 표현된 강호적 성격의 일단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사색의 과정 나아가 힐링의 과정으로 치환시켜보려는 필자의 의도이기도 하다.

Ⅲ. 축산의 노정과 사색의 방식

먼저 장제의 ‘노정’이라는 용어는 <축산별곡>의 형상화된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사색을 ‘다시 보기’ 하자는 의미까지 포괄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써 텔링 혹은 콘텐츠 구성을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먼저, <축산별곡>은 크게 총 다섯 부분의 내용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는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로 축산의 전반적인 지형, 특히 용비산과 호복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풍광에 대해 노래한다. 본사 1은 제11행에서 제21행까지로, 청원정에서 느낀 소회를 토로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자신이 부임하여 3년여 동안 공무를 수행한 축산 지방의 미풍양속에 대해 찬양조로 노래한다. 계속해서 본사 2부분은 제22행에서 제28행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특별한 곳에 대해 노래한다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특히 배를 통해 노룡연을 건너는 과정을 노래한다. 본사 3은 제29행에서 제39행까지로, 백석정과 영귀정이 노래의 주대상이 되고 있으며, 본사 4는 제40행에서 제50행까지로, 수월루와 옥정연의 감상을 노래한다. 마지막으로 결사는 제51행에서 제56행까지이며, 여기에서는 사미인(思美人)의 심정을 읊음으로써 노래를 마무리한다.

요컨대 이 작품에 보이는 작자의 노정은 축산에 부임하면서 본 축산

21) 조태성, 같은 글, 396쪽.

의 지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을 노래하는 서사를 시작으로 ‘(육로) 청원정 → (해로) 노룡연 → (육로) 백석정 → (해로) 영귀정 → (육로) 수월루와 옥정연’으로 이어지다가, 임금을 생각하는 ‘사미인(思美人)’으로 결사를 구성한다.²²⁾ 다음은 작품의 서사에 해당하는 일부분이다.

소중화(小中華) 제일형(第一形)이 하늘 삼긴 형승(形勝)이다.
천축산(天竺山) 한 활기 해동(海東)으로 뻗어오니
용비산(龍飛山) 뻗친 봉만(峰巒) 뛰어들어 앞에 섰다.
그 사이 내린 물이 호복천(虎伏川) 되었으니
유리(琉璃)를 쫓은 듯 백 년을 달리는 듯
청상(清爽)한 좋은 기운 밤낮으로 흘러든다.
긴 숲은 은영(隱映)하고 백사(白沙)는 눈이로다.
이보다 좋은 산천 또 어디 있겠느냐.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제남(濟南)에 명사(名士) 많다.
정사(政事)의 두신 밖에 내 봄에도 여러 해라.

용비산은 용궁면에서 남쪽으로 약 1킬로미터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산이다. 작가의 눈에 이 산과 그 아래를 흐르는 사천(沙川)인 호복천, 그리고 그곳을 감싸는 널따란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소중화(小中華)의 제일형(第一勝)’이라는 시작은 이런 아름다운 지형을 묘사하는 일종의 관습적 표현이다. ‘인걸은 지령이라~’는 언급 역시 용궁이 인재의 고장으로서 매우 중시되던 지역이었음을 이미 간파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서사 부분은 호남인 송순(宋純)의 <면앙정가>와 그 서술 방식이 매우 흡사하다. 아마 담양에 거처할 무렵 이미 송순의 노래를 익히 들으며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자신의 선조인 정철과 송순의 관계를 모를 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색의 시작으로 ‘길에서의 면앙(俛仰)’은 어떠한가? 여행을 시작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의 눈으로 ‘위-아래’의 공간을 훑어보며,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먼저 사색해

22) 조태성, 같은 글, 384쪽.

보자는 것이다. 여행의 동기이자 시작이며, 그것을 곧 사색-힐링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첫 번째 노정으로서의 청원정(淸遠亭)²³⁾을 노래한 부분이다.

청원정 돌아들어 읍호(邑戶)를 바라보니
청송(靑松)의 경절(勁節)은 지금도 빛나도다.
충효(忠孝)도 가질시고 열녀(烈女)도 하도 할사
서하(西河)의 미속(美俗)이요 추로(鄒魯)의 유풍(遺風)이라.
쇠옹(衰翁)이 성은(聖恩) 입어 이 땅에 패부(佩符)하니
유풍(遺風)을 배양하여 교화를 도술(導率)할까.
양성이 아니라도 진시는 양성하다.
바람을 순히 하니 소리를 빨리 하라.
옛그제 섭현비부(葉縣飛鳧) 어느 사이 삼 년인고.
유산(遊山) 음주(飲酒)는 못할 것도 없겠지만
문속(問俗) 관풍(觀風)이야 아니 하고 어찌하리.

호북천을 지나 도착한 곳이 청원정이다. 청원정은 고려시대 국파 전원발(1288~미상)의 옛 거처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작가는 충효와 열녀 등 공맹의 유풍을 노래한다. 청원정이라는 누정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그곳에 있게 된 연유로서의 성은(聖恩)을 노래하는 데 집중할 뿐이다. ‘강호’의 숨은 의미 혹은 숨은 지향 중의 하나가 바로 ‘성은’임을 감안한다면, <축산별곡>에서 청원정은 드러난 노정으로서 기행보다는 오히려 숨은 강호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는 첫 번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지는 노정은 해로(海路)이다. 청원정을 벗어나 노룡연을 따라 내려가는 뱃길의 감흥이 언급된 부분이다.

춘강(春江)의 배를 띄워 노룡연 내려가니
물가의 술바람은 금곡(琴曲)을 화답하고

23) 현재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9번지에 있다.

바위틈의 두견화는 푸른 물결에 비추이네.
어부의 긴 그물을 위아래로 가로 치니
아름다운 은빛 잉어 물가에서 소습(所習)하네.
한이부(韓吏部) 밤에 보고 두습유(杜拾遺) 겨울 희(戲)는
이 거동 견주자면 어느 것이 낫겠느냐.
남여(藍輿)에 빗겨 앉아 백석정 올라보니
사람은 어디 가고 빈 터만 남았는가.
청풍(淸風)이 완연(宛然)하여 노송에 머물렀나.

이 뱃길에서는 완전히 일어나는 흥취와 더불어 작가가 가진 외로움의 일단도 함께 나타난다. 기행가사적인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흥취와 외로움, 어찌 보면 전혀 반대의 감정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눈 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환호하면서도 갑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찌면 여행과 힐링의 만남이지 않을까. 그러나 작가는 다시 영귀정과 수월루에 이르러 강호에 충실한 사대부로 되돌아온다.

고주(孤舟) 소류(遡流)하여 영귀정 내려 앉아
송림(松林)을 바라보니 퇴도선생(退陶先生) 사우(祠宇)로다.
사정(私情)에 숙목(肅穆)하여 신위를 참배(瞻拜)하니
덕용(德容)을 뵈옵는 듯 백세에 흥감(興感)하다.
수사(洙泗)는 근원 멀고 이락(伊洛)이 물결 차니
후학(後學)이 예를 보아 해동주자(海東朱子) 법(法) 바다라.
홍화(紅花)도 벌써 지고 녹엽(綠葉)은 무성하여
정자(亭子)에 내렸더니 객회(客懷)를 둘 데 없다.
수월루 올라 앉아 옥정연을 굽어보니
가성(歌聲)은 청절(淸絶)하여 벽운(碧雲)에 올라가며
무수는 편천하여 녹수(綠水)를 떨치는 듯
양왕(襄王)의 좋은 일은 꿈에 어찌 생각던고.
가신(佳辰)의 이 좋은 일 뉘라서 주셨는가.
중추(中秋) 십오야의 수조가(水調歌) 읊은 말이
오랜 세월 사이에서 심사(心事)도 일반이라.

매운 바람 땅을 걷고 폭설이 흩날릴 제
명금각 깊은 밤에 촛불을 밝게 켜고
빈 술잔 가득 부어 고운 노래 들은 말이
인간의 오마영(五馬榮)은 이 밖에 또 있을까.

외로운 배 거슬러 올라 도착한 곳은 영귀정이다. 이곳에서 작가의 감정은 건너편 송림의 퇴도선생 사우에 기댄다. 정식이 평소 흠모해 마지 않았던 퇴계 이황의 사우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과 학문에 대한 소회가 펼쳐진다. 여기에서 영귀정은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매개 장소가 된다. 따라서 영귀정 주변의 풍광이나 승경이 기행 작시의 요건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노래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월루에서는 어떠한가. <수조가>를 떠올리며 문득 이별과 그리움의 심정을 토로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다면 그 이별과 그리움의 대상은 누구일 것인가. “영귀정 앞 퇴도선생(退陶先生)의 사우에서 주자학과 이퇴계를 찬송했던 그는, 수월루에 올라서는 임금의 덕을 칭송한다. 비길 데 없는 이 강호가도의 흥취를 안겨 주신 주군에 대해 노래로써나마 보답하리라는 마음가짐의 발로이다. 그가 가진 외로움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사미인(思美人)’의 정서 토로와 다를 바 없다. 다음 결사 부분에 이런 사미인의 정서가 표출된다.

사미인(思美人) 한 곡조에 단침(丹枕)이 격절(激切)하다.
나라에 헌신(獻身)하여 자목(字牧)을 받자오니
삼부(三府)를 못 미치나 오고(五鼓)에 전일(全日)하다.
왕사(王事)도 양장(仰帳)하고 쇠병(衰病)이 침심하나
옥루에 달린 마음 잠든다고 잊을쏘냐.
아희야 술 한 잔 다시 치고 축산별곡 불러라.

그의 심사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오로지 ‘사미인’이다. 그의 선조였던 송강 정철의 유품이 그대로 느껴진다. ‘옥루에 달린 마음 잠든다고

24) 조태성, 같은 글, 391쪽.

잇을쏘냐’는 정철이 남긴 양미인곡 중 ‘이 몸 삼기실 제 입을 조차 삼기 시니(<사미인곡>), ‘님 겨신窓 안해 번드시 비취리라(<숙미인곡>)’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이로 보면 <축산별곡>에서는 전반적으로 특정 장소와 관계된 승경 혹은 그로부터 비롯하는 개인의 흥취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특성 때문이었을지는 몰라도 이 작품이 그동안 기행가사로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그런 점에 더 주목했다. 기행 혹은 여행기라고 해서 특정 장소에서 그 장소만을 관찰하거나 노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장소가 사색의 매개가 되고, 그 사색의 주체가 ‘나’이거나 혹은 ‘우리’이거나를 전제한다면 승경의 감흥을 넘어서 또 다른 문학적 의미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그 장소는 ‘나’의 장소로 의미화되는 것이며, 일종의 ‘힐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축산별곡>에서는 후기 기행가사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해지는 탐문의 방식이나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중략) 선대의 유풍을 착실히 따르면서, 기행가사이면서도 기행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색이 중심이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이 가진 문학적 의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대의 가풍을 답습하는 듯하면서도 탐문의 과정과 결과에는 큰 비중이 없다는 점, 전반적인 내용이 자신의 사유와 학문에 대한 흥미, 그리고 충신연주지사인 점 등은 결국 <축산별곡> 역시 기행가사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변모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행가사이면서도 탐문보다는 작자의 사색을 담은 그릇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가사의) 변모 양상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축산별곡>은 탐승의 대상이 되는 지역 혹은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 향유되었던 기행가사의 대상이 되었던 지

25) 조태성, 같은 글, 396~397쪽.

역과 작품은 평안도의 <관서별곡>, 강원도의 <관동별곡>, <영삼별곡>, 함경도의 <출새곡>, 전라도의 <천풍가> 등이었다. “관서, 관동, 관북, 호남이 모두 포괄되어 있으나, 유독 충청과 영남지역만 빠져 있다. 정식의 <축산별곡>은 이러한 지역적 결손을 <축산별곡>이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이 관유가사의 전통을 영남에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²⁶⁾ 물론 이러한 확산은 작품 창작 행위나 그 결과물의 확대가 아닌 작품의 지역적, 공간적 확산을 의미한다.

IV. 나오며 : ‘만들어가는’ 콘텐츠로서의 기행가사

‘길’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시도라면 사상 및 교유의 길 탐색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콘텐츠 구성 관점에서는 옛길 복원, 둘레길 조성 등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보인다. 복원된 길에서 사색할 수 있는 또는 사색을 이끌 수 있는 스토리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스토리가 여행의 축으로 작용하면서 길을 따라 사색하는 가운데서 힐링 체험의 완성을 이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스토리의 원천으로서 필자는 기행가사를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길도 좋겠지만, 기행가사에 형상화된 여정 속의 길을 다시 만들어가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육로도 좋고 해로도 좋다. 예를 들어 영산강 뱃길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뱃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가 빈곤한 것이 문제다. 축산의 뱃길에는 오늘날 이미 복원된 주막이 존재한다. 주막과 관련한 스토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일도 제안해 볼 만하다.

물론 이 모든 스토리의 구성, 즉 스토리텔링의 전제는 무엇보다도 ‘공

26) 조태성, 같은 글, 394~396쪽.

감'이다. '나-대상'의 관계에서 나를 사색으로 이끄는 매개는 대상과 그 대상이 가진 스토리와 공감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사색이 실재의 공간과 가공된 공간 사이를 넘나들며 일종의 치유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볼 때,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인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가공되는 문학공간이다. ‘스토리(Story)+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기술의 총체다. 이때 이야기는 특정 부류를 타깃으로 하여야 효과가 크며 내용은 듣는 이의 흥미를 자극하며 그 방향은 다중성(多衆性)을 지녀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²⁷⁾ 그런 계기의 시작이 바로 ‘사색’이며, 이로부터 공감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공간의 스토리가 “곧 공감의 전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공감의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축의 설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축’이란 스토리를 구성하는, 즉 텔링하는 일종의 ‘길’의 기준점을 의미한다.” 특정된 하나의 공간 혹은 장소만으로도 하나의 길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공간들) 사이를 연결하는 ‘길’과 그 길을 통한 스토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축’과 ‘길’은 그래서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 현상과 실체로서의 문화가 온축된 융합콘텐츠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⁸⁾

하지만 실제 이루어진 그간의 연구 성과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양적으로 이미 풍부한 성과들을 갖추어오긴 했지만 그 지향에 있어 편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판단이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과 관련한 경제적 생산성을 고려한 측면이라거

27)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도서출판 역락, 2006), 381쪽.

28) 조태성, 「영산강 권역의 누정문학 연구-누정문학 콘텐츠화를 위한 기초 조사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5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97~98쪽.

나 혹은 관련 인물에 대한 자원화 방안 모색,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탐색 등에 그치고 만다.²⁹⁾ 필자는 그것이 ‘공감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색이나 소통의 매개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은 일단 차후로 미룬다. 다만 그 해결의 전제는 ‘축’과 ‘길’의 설정, 그리고 그 설정의 과정 자체가 콘텐츠 구성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

※ 이 논문은 2021년 5월 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29)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로 최수웅·강민희,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도출 방안 연구-경상북도 봉화군의 누정문화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2(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4), 이순임, 「차문화와 누정문화의 상관성 연구-무등산권을 중심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정영길, 「지방문화학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화연구』 24(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3), 정용수, 「밀양의 누정 자료 조사연구와 그 콘텐츠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당논총』 36(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소, 2006)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권경열, 최연숙 옮김,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2018, 9쪽.
-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69권, 한민족어문학회, 2015.
- 이순임, 「차문화와 누정문화의 상관성 연구-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 2006, 381쪽.
- 장정수, 「<축산별곡>의 성격과 작자의식」, 『어문론총』 87,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 정기철, 『한국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도서출판 역락, 2001.
- 정영길, 「지방문화와 문화콘텐츠」, 『한국문화연구』 2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3.
- 정용수, 「밀양의 누정자료 조사연구와 그 콘텐츠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석당논총』 36,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소, 2006.
- 조태성, 「정식의 <축산별곡>과 그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가학회, 2010, 380쪽.
- 조태성, 「영산강 권역의 누정문학 연구-누정문학 콘텐츠화를 위한 기초 조사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5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97~98쪽.
- 진동혁, 「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일지사, 1982.
- 최강현, 「한국기행가사의 현황과 연구 동향」, 제5회 가사문학전국학술대회 발표집, 2004, 2쪽.
- 최수웅·강민희,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도출 방안 연구-경상북도 봉화군의 누정문화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2,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4.

Abstract

The praise of Gangho(江湖) in Yeongnam, Jeong-sik's
<Chooksan-Byeolgok(竺山別曲)>

Jo, Tae-seong

In the current studies on the 'road'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there are areas that are commonly considered to be lacking. That is the absence of 'stories' that can be contemplated or lead to contemplation on the restored road. The story usually serves as the main axis of the trip. And while contemplating along the story and path, it can lead to the completion of the healing experience. From this point of view, I have conceived livestock as a space and axis of reflection. And I paid attention to <Chooksan-Byeolgok(竺山別曲)> as a result of speculation. This is because I believe that the result of his speculation was born into a song with a story.

The beginning of a trip or traveling is always an encounter with an unfamiliar area and an unfamiliar road. Then, what was the speculation pattern of Jeong-sik encounter with 'Chooksan'? Will it have a point of contact with our speculation and healing as we go on the road today? Could such a point of contact be composed of contents called 'the road'?

In the end, the process and orientation of thinking is the setting of the 'axis' and the 'road,' and will the 'speculation on the road' not be linked to the 're-mind mapping' in the contentization process? It was

al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o delve into these parts.

keywords :

Chooksan-Byeolgok(竺山別曲), The praise of Gangho(江湖), Road, Story, Re-mind mapping

